

제42호 (2013.1.29)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

김 용 렬 성 주 인

1. 조사 개요	3
2. 도시민이 바라는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모습	4
3. 요약 및 시사점	13

감 수: **송미령** 연구위원 02-3299-4351 mrsong@krei.re.kr
내용 문의: **김용렬** 연구위원 02-3299-4362 kimyl@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대도시 거주 도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도시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각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을 찾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특히, 막연하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농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줄었으나, 실제 농어촌에서 생활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전원적 삶을 영위하고자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음.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농어촌의 모습은 도시화 된 농어촌의 모습보다는 전원적이면서 농촌 다움이 살아있고, 도시와 달리 포근한 인간적인 삶이 살아있는 곳임.

2005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영농활동, 개인사업, 다른 직장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경제활동보다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높았음. 특히, 지역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음.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생활의 여유보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전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는 의향이 많음. 또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웃과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았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집단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에 비해 일반적인 농촌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마을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존 농촌마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의 위치는 기존 마을에서 떨어져 별도로 조성된 마을을 선호하는 경향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마을에서 기존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적응하려는 경향이 높아 기존 마을 내 입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주 시 사용할 주택의 선호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이는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¹⁾
 - 본 조사의 목적은 농어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이 바라는 농어촌의 모습, 정주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주 후 활동 등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음
 - 주요내용은 도시 생활 및 농촌 생활에 대한 태도, 귀농·귀촌 의향, 이주시 선호하는 정주여건, 선호하는 이주 지역 등임
- 조사대상
 - 전국 7대 광역시 거주 도시민 2,000명
-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3:7로 설정
- 설문조사 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조사 기간
 - 2012년 8월 31일(금) ~ 9월 7일(금)
-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19\%$ Point

1) 도시민의 의견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2년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성주인·박시현·김용렬·윤병석·남기천의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로 조사된 내용을 이용하였고, 2005년은 송미령·박석두·성주인·박경철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을, 2007년 자료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된 송미령·박주영·성주인·김용렬의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원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하였음

2. 도시민이 바라는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모습

- 농어촌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준은 2005년의 경우 농어촌 이주 의향이 높고, 이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으며, 2007년과 2012년에는 위 두 가지 조건에다 10년 이내 농어촌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
 - 2005년 조사는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 조사를 위해 도시지역의 20~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농촌생활에 대한 태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의향 및 연고 여부, 주말농원에 대한 의향, 농어촌 이주 의향, 농어촌 이주 계획, 농어촌 주거유형별 이주 의향, 농어촌 이주에 따른 불편 및 지원 희망 등
 - 2007년의 농촌 정주수요 조사에서 도시민 농촌 이주 의향 조사를 위해 전국 동 지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2005년도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 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 도시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고, 이유는 일에 쫓기는 각박한 도시생활 때문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에서 32.1%,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33.3%로 나타나 현재 도시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약간 높음

 - 그러나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인데, ‘공감한다’ 35.4%, ‘공감하지 않는다’ 10.8%로 현재 도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높음

표 1. 도시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내 용	만족			만족하지 않음		
	2012	2007	2005	2012	2007	2005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	32.1 (66.7)	87.9	71.8	33.3	12.1	28.2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35.4 (89.2)	70.5	68.1	10.8	29.5	31.9

주 1) 2012년의 경우 '보통'으로 표기한 사람은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53.1%, 이주가능성 높은 사람은 34.6%

2) 2012년 ()안의 수치는 '보통'으로 나타난 의향을 포함한 수치

- 도시생활 불만족의 이유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많은 생활비' 28.2%, '일에 쫓기는 각박한 생활' 24.8%로 현재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각박함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에 쫓기는 각박한 생활' 46.2%, '이웃과 고립된 개인주의적 생활' 15.4%, '자연과 동떨어진 생활환경' 15.4%로 높게 나왔고, '많은 생활비'는 7.7%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각박한 삶으로 부터 벗어나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을 찾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함
- 농어촌 이주 의향은 있지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그룹은 증가
 - 농어촌 이주 의향은 있지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의 비중은 2005년 56.1%, 2007년 56.3%, 2012년 48.5%로 2007년에 비해 약 6% 정도 감소하였음
 - 농어촌 이주 의향이 매우 높고, 구체적인 이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이주하려는 도시민은 2012년 3.9%로 2005년의 2.9%와 2007년의 1.7% 보다 두 배 이상 증가

- 막연하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농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에서 생활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전원적 농어촌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실행에 옮길 시간이 임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 농어촌 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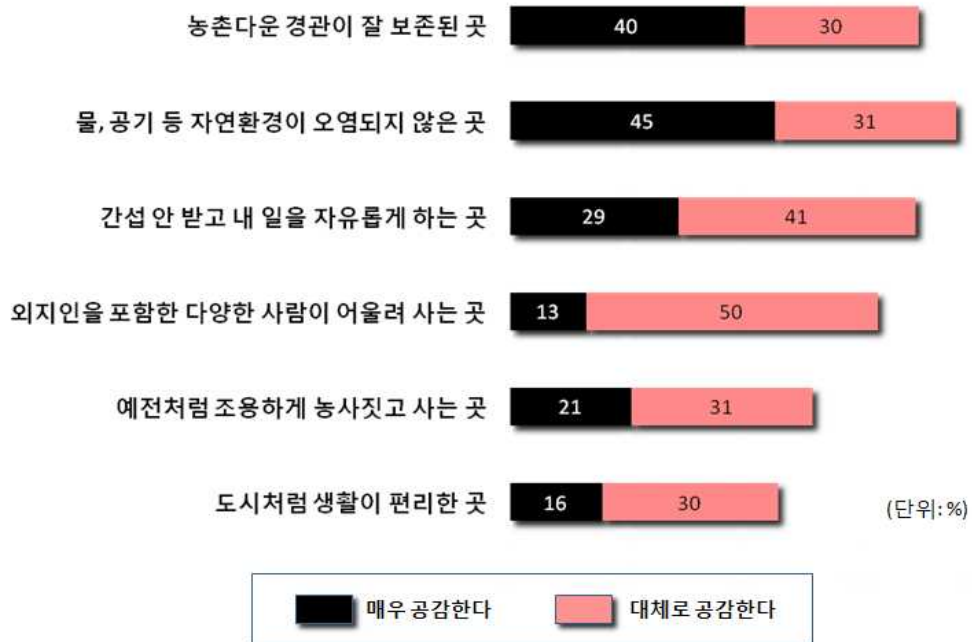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2	2007	2005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3.9	1.7	2.9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사람	48.5	56.3	56.1

□ 도시민들은 농어촌이 물, 공기 등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농촌다운 경관이 잘 보존된 곳으로 남기를 희망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농어촌의 모습 중에서 ‘물, 공기 등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61.1%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간섭 안 받고,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곳’ 51.4%, ‘토박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 49.4%, ‘농촌다운 경관이 잘 보존된 곳’ 48.3%, ‘예전처럼 조용하게 농사짓고 사는 곳’ 28.8%, ‘도시처럼 생활이 편리한 곳’ 26.6% 등의 순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추려서 보면, 이들이 바라는 농어촌의 모습은 ‘물, 공기 등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76.6%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농촌다운 경관이 잘 보존된 곳’ 70.1%, ‘간섭 안 받고,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곳’ 69.7%, ‘토박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 63.2%, ‘예전처럼 조용하게 농사짓고 사는 곳’ 51.9%, ‘도시처럼 생활이 편리한 곳’ 46.1% 등의 순

그림 1.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이 바라는 농어촌의 모습



주: 조사대상 2천 명 가운데 농어촌 이주 의향이 아주 높으며, 10년 내 이주 예정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농어촌 모습에 대한 의견을 집계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과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나 농어촌에 바라는 모습의 순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다만, 농
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어촌이 도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도시생활의 불만사항에서도 나타났지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
람들은 전원적이면서 농촌다움이 살아있고, 도시와 달리 포근한 인
간적인 삶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어촌 이주 후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보다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

- 2005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영농활동, 개인사업, 다른 직장에 종사하
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64.7%, 54.7%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보다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72.4%에 달함
 - 비경제활동들 중 ‘마을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고, ‘취미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생활’ 28.6%, ‘휴식 및 요양’ 6.5%, ‘친목회, 동호회 활동’ 3.9% 등의 순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도 이주가 확실히 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으며, 비경제활동에서는 ‘취미 및 여가생활’이 36.0%로 가장 높았고, ‘마을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16.1%, ‘휴식 및 요양’ 10.6% 등의 순

- 따라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농촌이주 시 개인적 생활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반면에, 농촌 이주가 확실히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 생활의 여유보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과 지역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

표 3.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 후 지역 활동

단위: %

연 도		2012		2007	2005
		이주 준비하는 도시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본격적인 영농 활동		11.7	12.8	25.0	36.0
자영업/개인사업		7.8	13.5	25.0	25.6
향토자원가공업/농촌관광		6.5	6.1		
직장생활		-	-	3.1	4.7
전문직종사		-	-	12.5	11.6
경제 활동 안함	마을사업/지역사회 봉사활동	33.8	16.1	34.4	20.9
	취미/여가생활	28.6	36.0		
	휴식/요양	6.5	10.6		
	친목회 동호회 활동	3.9	3.1		
	소계	72.7	65.8		
기타		1.3	1.8	-	1.2

주: 2005년과 2007년은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의견

□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생활하기 불편할 것 같다는 염려가 많음

- 농어촌으로 이주했을 때 가장 우려되고 불편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2012년 설문에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가 20.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친교가 어렵다’가 13.0%를 차지하였음
 - 반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14.7%, ‘자식들 교육시키기가 안 좋다’ 14.2%, ‘이웃 주민들과의 친교가 어렵다’가 7.5%를 차지하였음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웃과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염려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경제적 사항, 교육, 생활 등 공동체적인 염려보다는 개인적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 시 우려/불편 사항
지역 활동

단위: %

연 도	2012		2007	2005
	이주 준비하는 도시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우려/불편사항				
생활하기 불편하다	20.8	36.4	15.6	23.3
자녀들 교육시키기 안 좋다	2.6	14.2		
일자리/소득 기회 부족	7.8	14.7	15.6	9.3
쓰레기, 환경오염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7.8	2.9		
이웃 주민들과의 친교가 어렵다	13.0	7.5	28.1	5.8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	2.6	3.7	-	-
수입이 적을 것 같다	-	-	12.5	25.6
도시의 친지/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다	-	-	12.5	16.3
기타	45.4	21.2	12.5	11.6
모름/무응답	-	-	3.1	8.1

주: 2005년과 2007년은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의견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가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진 것이 특징
 - 2005년과 2007년에는 일반적인 농촌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2년에는 일반적인 농촌지역이 약간 높긴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가까운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음
 - 농촌이주 시 우려되는 사항과 연계해 보면,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하면서도 도시적인 인프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함을 의미함
 - 2012년 결과만 보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집단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에 비해 일반적인 농촌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 시 선호지역

단위: %

연 도	2012		2007	2005
	이주 준비하는 도시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선호지역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	32.9	33.1	21.9	15.1
중소도시에서 가까운 지역	31.6	25.8	25.0	27.9
일반적인 농촌지역	34.2	24.7	43.7	50.0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 없다	1.3	16.4	9.4	7.0

주: 2005년과 2007년은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의견

- 이주 시에 선호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농촌마을에 살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마을에서 떨어져 별도로 조성된 마을에 대한 선호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 농어촌 이주 시 ‘기존 농촌마을 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견이 2005년에 62.4%이던 것이 2012년에는 46.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별도로 조성된 마을은 2005년에 20.0%이던 것이 2012년에는 29.9%로 약 10% 가량 증가하였음
 - 이는 기존 마을 내 주택을 이용하기 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나 마을과 떨어진 채 새롭게 만든 주택을 더 선호함을 의미하는데, 농촌마을의 무분별한 주택 신축으로 인한 난개발이 염려됨
-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기존 농촌 마을 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견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마을과 떨어진 전원 주택단지를 더 선호하고 있음
 - 이주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기존 마을에서 기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적응하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주택단지에 살고자 하는 생각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 시 선호마을

단위: %

연 도	2012		2007	2005
	이주 준비하는 도시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선호마을				
기존 농촌 마을 내	46.8	38.2	60.6	62.4
별도로 조성된 마을	마을과 떨어진 단독 주택	10.4	18.2	20.0
	마을과 떨어진 전원 주택 단지	19.5		
	소계	29.9		
어느 지역이든 괜찮다	23.3	25.7	21.2	17.6
기타	-	2.1	-	-

주: 2005년과 2007년은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의견

□ 이주 시 사용할 주택의 선호를 조사한 결과,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은 늘어났고, 단독주택 신축을 하겠다는 의견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단독주택 신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추세는 2005년과 2012년이 비슷함

- 아마도 농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배경에는 빈집수리나 농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확대된 이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7.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 시 선호주택

단위: %

연 도	2012		2007	2005
	이주 준비하는 도시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		
선호주택				
농가주택 리모델링	33.8	28.7	24.2	27.6
단독주택 신축	62.3	60.2	72.7	64.4
다가구/다세대 주택	-	3.4	-	2.3
아파트	1.3	5.1	-	2.3
임시거처	1.3	0.9	-	-
공동시설이 구비된 공유주택	-	-	-	1.1
기타	1.3	1.7	3.1	1.1
모름/무응답	-	-	-	1.1

주: 2005년과 2007년은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의 의견

3. 요약 및 시사점

- 도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농어촌 이주 의향이 높음
 - 2012년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각박한 삶으로 부터 벗어나 이웃과 함께 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을 찾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은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농어촌을 원함
 - 막연하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농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줄었으나, 실제 농어촌에서 생활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전원적 삶을 영위하고자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음.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의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농어촌의 모습은 도시화된 농어촌보다는 전원적 이면서 농촌다움이 살아 있고, 도시와 달리 포근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임

- 농어촌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며, 생활의 불편과 이웃과의 관계를 염려
 - 예전에는 농어촌 이주 후에 영농활동, 개인사업, 다른 직장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경제활동보다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높았음

- 전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활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많음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웃과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염려를 많이 함

□ 이주를 희망하는 곳은 도시와 가까운 농어촌 지역이면서 별도로 조성된 마을에 농가 리모델링을 선호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집단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에 비해 일반적인 농촌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호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농촌마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마을에서 떨어져 별도로 조성된 마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으로 이주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기존 마을에서 기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적응하려는 경향이 높아 기존 마을내 입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이주 시 사용할 주택의 선호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이는 기존 농가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아울러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보다 치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립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업·농촌에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농촌다움을 지켜야 국민들이 농어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농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
-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유연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활동과 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편안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더불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함. 정보획득의 접근성, 주거지 확보, 지역사회와의 소통,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시스템이 중요함
 -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경제적 활동 기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더 확대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함. 개인적인 이익과 취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과 지역공동체에 힘을 보탬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 28

발 행 2013. 1. 29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25-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